

‘디자인비엔날레’ ‘아트페어’ 주관처 변경 우려 목소리

10년만에 비엔날레재단 일원화
“디자인 행사 추진 시대흐름 역행”
문화예술단체 경쟁력 저하 지적

광주시가 광주디자인진흥원이 운영했던 ‘광주디자인비엔날레’와 광주미협(한국미술협회 광주지회) 등 민간단체에 공모영역을 줬던 광주국제아트페어 ‘아트광주’의 주관처를 각각 광주비엔날레재단과 광주문화재단으로 변경하기로 발표하면서 업계 반발이 예상된다. 주관처 변경에 뚜렷한 이유나 목적을 찾아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행사 성격에 맞지 않는 주관처 변경으로 전문성을 살릴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24일 오전 시청 브리핑을 통해 “광주디자인비엔날레와 아트페어 운영을 새롭게 정비하겠다”며 “광주디자인진흥원이 주관한 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올해부터 광주비엔날레재단이, 민간단체에 공모영역을 줬던 아트페어는 올

해부터 광주문화재단이 운영하는 것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행사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디자인비엔날레와 아트페어에 대한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1995년 창설된 광주비엔날레 행사에 이어 미술도시광주의 경제적 파급효과까지 노린 새로운 행사였다. 광주비엔날레재단은 순수아트와 차별화된 산업적 영역의 박람회로 2005년 광주디자인비엔날레를 창설했고, ‘디자인’ 영역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2015년 제6회 행사부터 광주디자인진흥원이 주관했다.

이번 강 시장의 발표는 10년 전 광주디자인비엔날레를 광주비엔날레와 분리해 추진하기로 한 결정을 다시 뒤집는 내용인 셈이다.

지역대학의 한 디자인학과 교수는 “아트와 기술이 만난 디자인은 예술과는 별개의 개념이다”며 “기술이 발달하면서 4차산업, AI 등 여러 분야에서 디자인의



지난해 9월 7일부터 11월 7일까지 열린 제10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전남일보 자료사진

개념이 발전하고 있는 만큼 디자인 전문기관과 디자인 전문가가 광주디자인비엔날레 행사를 주최, 주관해야 한다. 순수예술 기관이 디자인 행사를 추진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는 결정이다”고 말했다.

‘아트광주’ 역시 광주비엔날레재단이 지난 2010년 미술시장의 유통구조를 활성화할 목적으로 출품작을 구매할 수 있는 ‘아트페어’ 형식의 행사를 새롭게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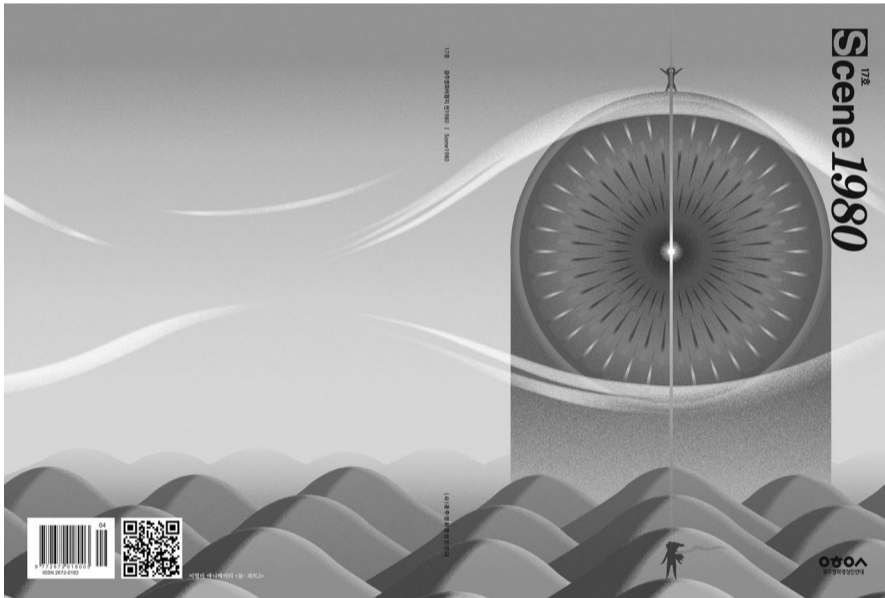
출범 다음 해인 제2회 아트광주를 광주

문화재단이 주관한 바 있으나, 시장의 성격이 강한 행사의 특성상 화랑과 지역미술인이 직접 주체가 돼야 한다는 여론이 있어 이후 광주시가 사업자 공모영역 방식으로 행사를 주최하게 됐다.

현재 광주문화재단 시민생활문화팀 소속으로 아트광주 사무국이 구성됐지만, 예술감독 선임과 한 명의 기간제 인력 채용을 제외한 구체적인 인력 구성이 짜여지지 않은 상황이다.

지역의 한 문화전문 기획자는 “그동안 진행된 광주아트는 다른 지역 아트페어와 달리 시가 주최해 예산을 지원하고 공모영역에서 선정된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반반 형식의 모델로, 참여 화랑들의 부스 선점 비용의 부담은 줄이고 공적 영역에서 감시 시스템이 작동하는 좋은 모델이었다”며 “다시 광주시 산하 공공기관인 문화재단이 행사를 주관하게 된다면, 이점도 있겠지만 광주지역 문화예술 민간단체 경쟁력이나 자생력 저하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도선인 기자 sunin.do@jnilbo.com



광주 영화비평지 ‘씬1980’ 17호 발행

인문학당 ‘스크린셀러...展’ 리뷰

광주 영화비평지 ‘씬1980(편집장 김수진)’ 17호가 지난 16일 발행했다.

이번 호에는 오는 26일부터 6월 30일까지 동구 인문학당에서 열리는 ‘스크린셀러 도서展’에 대한 글이 게재됐다. 책과 영화가 만나 어떤 시너지효과를 보여줄 수 있는지 동구 인문학당 조대영 프로그램 디렉터의 이야기를 통해 미리 만나 볼 수 있다.

클로즈업에는 ‘오늘을 새롭게, 내일을 이롭게(글 김수진)’라는 제목으로 광주 교사영상모임 ‘참네모’의 임성열 광주시 교육청 장학사의 인터뷰가 실렸다. 1년 전부터 (사)광주영화영상인연대 이사로 활동 중인 그는 현재 광주 지역의 교육계와 영화계를 지속적으로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하고 있다.

딥포커스에는 ‘중년여성에 대한 따뜻한 시선(글 정주미)’이라는 제목으로 김소영 감독의 작품 세계가 소개됐다. 김 감독은 광주 지역에서 중년여성을 소재로 한 단편을 다수 제작한 바 있다. 최근작 ‘올

리브(All-live)’는 오는 5월 1일 개최되는 제25회 전주국제영화제의 ‘특별상영: 지역독립영화 쇼케이스’ 부문에서 상영될 예정이다.

이번 호의 표지는 드니 빌뇌브 감독의 ‘둔: 파트2(2024)’를 모티프로 한 일러스트로 이명미 애니메이터가 작업에 참여했다. 관객 참여 코너 ‘픽앤틱’에서는 ‘둔: 파트2’에 대한 관객 6인의 감상평을 확인할 수 있다. 감상평 참여는 ‘씬1980’ 공식 인스타그램(@scene_1980)을 통해 가능하며 선정자에게는 광주독립영화관 예매권 2매가 주어진다.

‘씬1980’은 (사)광주영화영상인연대 주관으로 1년에 4회 발행되는 계간지다. 매호 평균 80페이지 분량으로 1000부를 인쇄해 광주·전남 포함 전국의 영화관, 영화제, 영화단체, 영화인들과 문화예술인들에게 정기로 우편 발송하며 이외에 광주독립영화관, 광주극장을 비롯해 독립서점 책과 생활, 소년의 서, 이것은 서점이 아니다, 너른벽(경주), 보안서점(서울), 무사이극장(부산), 카페 구름곳 등에서 무료로 배포 중이다. **도선인 기자**

ACC 호남지역 예술대학 졸업 전시 공모

6월 3일까지 참여 학과 모집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호남지역 예술대학을 대상으로 졸업 전시를 지원할 학과를 찾는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이 문화예술분야 잠재적 유망주이자 청년 예비 예술인인 예술대학 졸업 예정자의 졸업 전시 지원을 위해 오는 6월3일까지 참여 학과를 모집한다.

공모 대상은 호남지역에 소재한 대학 문화예술 관련 학과로 졸업 전시가 가능해야 한다. ACC는 최종 선발된 4개 학과에 관람객 휴식 공간인 문화정보원 내 대나무 정원을 전시 공간으로 제공하고 전시장 구축 및 전시 개막행사 개최 등을 지원한다.

이번 공모에서 ACC 대나무 정원이라는 공간 특성에 어울리는 △전시장소의 적합성 △기획서의 실현 가능성 △전시주제의 참신성 △관람객과 소통을 위한 공공·공감성을 주된 기준으로 평가한다.

전시는 오는 10~12월 학과별 10일씩 40일 릴레이 형태로 진행된다. 선정학과 참여 학생에 전시 준비·운영 과정 협업 기회를 통해 현장 실무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광주여성가족재단 ‘여성친화마을 리더학교’ 운영

선착순 20명 대상
30일부터 5회 강좌

광주여성가족재단이 ‘여성친화마을 리더 양성’에 앞장선다. 광주여성가족재단은 오는 30일부터 5월 28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총 5회에 걸쳐 ‘2024 여성친화마을 리더학교’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2024 여성친화마을 리더학교’의 올해 주제는 ‘여성친화마을 아는 만큼 보인다’이다. 지역 여성친화마을 공동체 대표 및 활동가, 여성친화마을에 관심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총 20명을 선착순 모집하고 있으며, 교육 시간 80% 이상을 수강한 교육생에게



ACC가 공모하는 호남지역 예술대학 졸업전시사가 진행될 대나무 정원의 모습. ACC 제공

이다.

접수는 ACC 누리집(www.acc.go.kr) 모집 공고에 첨부된 지원서 작성 후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ACC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강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은 “ACC는 예술대학 연계 졸업 전시를 통해 미래 문화예술 창·제작자 발굴 및 육성에

이바지하고자 한다”면서 “청년 예술인에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ACC와 예술대학 간 네트워크 활성화에도 긍정적 역할을 기대한다”면서 “관심있는 호남지역 예술대학 졸업 예정자(학과)들의 지원 바란다”고 덧붙였다. **도선인 기자**

는 수료증이 발급된다.

교육의 주요 내용은 △여성친화마을 알아보기(4월 30일 임이정 재단 여성친화도시 전담인력) △여성친화도시의 이해와 사례 알아보기(5월 7일 최유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별영향평가센터장) △보통 E 사용법 알아보기(5월 14일 장현규 마을발전소 사무국장) △효과적인 회의 및 의견 취합 방법 알아보기(5월 21일 김은하 마연컨설팅 대표) △성평등 관점으로 우리 마을 알아보기(5월 28일 이아승 재단 성별영향평가센터 전담연구원)다.

특히 ‘보통E 사용법 알아보기’ 수업은 광주시 여성친화마을 선정 8개 단체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교육으로 8개 단체를 위

한 특별강의로 진행된다. 광주시 여성친화마을 지원단체는 △동구 충장동 주민자치회(충장동 여성상인의 이야기 발굴을 통해 시대별 다양한 여성상을 기록) △서구 꿈꾸는 작은도서관(방과후 마을돌봄 교실 운영과 아빠놀이지도 코칭) △남구 십시일반 나눔마을학교(지역 자원을 연계한 마을배움터 운영) △북구 꿈나무사회복지관(마을주민이 주도하는 온마을 공동육아 프로그램 운영) △광산구 첨단 살롱 여문순(마을 주민이 쉽게 성평등 교육 접하도록 성평등 주제에 맞는 공예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8곳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062-670-0538)로 문의. **도선인 기자**

Logo for '全南日報 @jnilbo 전남일보 인스타그램' with QR code and social media handles #호남대표미디어 #전남일보 #jnilbo